



계명 誠命 [라]mandats [영]commandments

I. 윤리신학에서의 계명 “❤️❤️”

계명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자들이 따라야 할 하느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사회 유지를 위해 만든 사회적 개념인 법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계명과 법은 발생 기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명은 신(神),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건립의 기초가 된 ‘십계명’의 생성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명도 역시 역사적, 문화적 산물입니다. 계명의 형태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II. 구약성경의 계명 “❤️❤️”

구약성경에서 계명은 ‘토라’(律法)입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본래 ‘가르침’을 뜻합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것으로 믿는 토라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하는 공동체로 부각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토라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십계명(탈출 20,1-17), 종들에 관한 규정(탈출 21,12-36), 안식일 계명(탈출 35,1-3),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계명(레위 25,1-55), 십일조 규정(레위 27,30-34; 신명 14,22-29) 등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제3계와 제4계는 ‘~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하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탈출기 20장 1-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에서처럼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 둘 가운데 탈출기의 내용이 더 오래 되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탈출기 전승보다 훨씬 후대인 기원전 7~6세기에 엮은 신명기 전승은 탈출기 전승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다릅니다. 탈출기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 이레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전합니다. 반면 신명기는 사회적 동기를 들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신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축까지도 아껴야 한다는 이유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둘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탈출기에는 이웃 사람의 집이나 아내, 종, 소나 나귀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웃 사람의 아내를 제일 먼저 말하여 다른 소유물과 구별하였습니다.

구약 말기에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기초로 365개의 금령과 248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613개나 되는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계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하느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확고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려는 잘못된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III. 신약성경의 계명 “❤️❤️”

계명은 그리스어로 엔톨레(entole)인데, 이것은 본래 왕의 명령 또는 공적인 명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일반적인 용어가 70인역에서 종교적 성격을 띤 용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계명은 주로 예수와 바리사이들의 논쟁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논쟁들을 살펴보면 예수는 유대인들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마르 2,23~3,6), 정결 계명을 어겼습니다.(마르 7,1-23)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가 유대교 계명들을 지킨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 1,21; 10,17-22; 14,12-16, 마태 8,1-4; 9,20; 19,16-22; 루카 18,18-23) 예수는 왜 이처럼 계명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취하셨을까? 그것은 모든 계명을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환원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는 모든 계명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가 유대교 계명을 어긴 경우에는 언제나 이 사랑의 계명이 침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 ·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윤리 지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IV. 의의와 적용 “❤️❤️”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지킨 계명들은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정해 놓은 음식 규정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해 놓은 안식일 계명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예수는 613개나 되는 계명들을 지키는 데 지쳐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마태 11,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의 계명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은 여전히 하느님의 뜻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십계명 十誡命 [히]יְהוָה־עֲשָׂה [그]δεκά-λογιοι
 [라]decalogus [영]Decalogue, ten commandments

시나이 산에서 야훼 하느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한 열 가지 말씀 또는 율법.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밝혀 주는 말씀들로, 하느님이 “손수”(탈출 31,18; 신명 5,22)쓴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의 요약인 동시에 하느님 의지의 총괄이며, 교회의 핵심 사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집약한 그리스도교의 대강령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초이며 모든 인간 도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열 말씀”(탈출 34,28; 신명 4,13; 10,4)을 뜻하는데, 탈출기 20장 1-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에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I. 성경 안에서의 위치와 특성 “❤️👉”

탈출기의 십계명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 이루어지는 ‘시나이 산의 계약’(탈출 19,1-24,11)에 포함되어 있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광야에서의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문맥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두 가지 형태의 십계명은 20여 곳에서 작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안식일 계명의 제정 근거는 그 차이가 큼니다. 탈출기에서는 하느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렛날 쉬셨기 때문(20,11)이라고 제정의 이유를 설명한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하느님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으므로(5,15)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손가락을 꼽으면서 쉽게 기억하도록 열 마디의 간단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6~9계명들은 짧고 다른 계명들은 길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긴 계명들도 이 계명들처럼 짧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제3계명(안식일)과 제4계명(부모 공경)만이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부정사(לֹא)를 동반한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지 말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 것들은 “...하라”는 수많은 긍정적인 명령들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 늘 읽고 외우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모든 회중들 앞에서 십계명을 낭독하였는데, 특히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에 실시되는 계약 갱신제에서 낭독하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신명 31,10-13)

탈출기나 신명기의 십계명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으므로, 교회에 따라 그 분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톨릭·성공회·루터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에서 제1~2계명(다른 신·우상 숭배 금지)으로 분류한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간주한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에서 제10계명으로 분류한 것들을 둘로 나누어 제9계명과 제10계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2절·3-6절·7절·8-11절·12절·13절·15절·16절·17절로 구분하고, 가톨릭교회는 3-6절·7절·8-11절·12절·13절·14절·15절·16절·17a절·17b절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원형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동방 교회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3절·4-6절·7절·8-11절·12절·13절·14절·15절·16절·17절로 십계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II. 내용과 정신 “❤️❤️”

★ 서언-해방의 하느님

서언은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신명 5,6) 이 서언은 탈출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역사적 서언’이라고 불립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하느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 내어 해방하신 하느님입니다. 이 서언은 하느님의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하느님은 해방의 하느님이요 인간은 종으로 살 수 없는 해방된 존재라는 성격 규정입니다. 이 역사적 서언에 나오는 열 가지의 계명은 서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행방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언은 모든 사람의 해방을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억눌림 당한 자들의 해방을 강조하였고, 서언에 이어 나오는 열 가지 계명도 전반적으로는 인간 해방을 말하지만 특히 억눌린 자와 약자 등 민중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III. 의 미 “❤️❤️”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이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한 대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청사진이며 강령입니다. 십계명은 특히 강자에게 눌리고 착취당하는 약자들을 해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불의와 폭력, 착취와 불평등으로 얼룩진 세계에 대한 혁명 선언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역사적 배경이 된 탈출기 사건이 혁명적이었던 것처럼 십계명은 개혁적이요 혁명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인류 공동체의 청사진이요 대강령인 것입니다.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십계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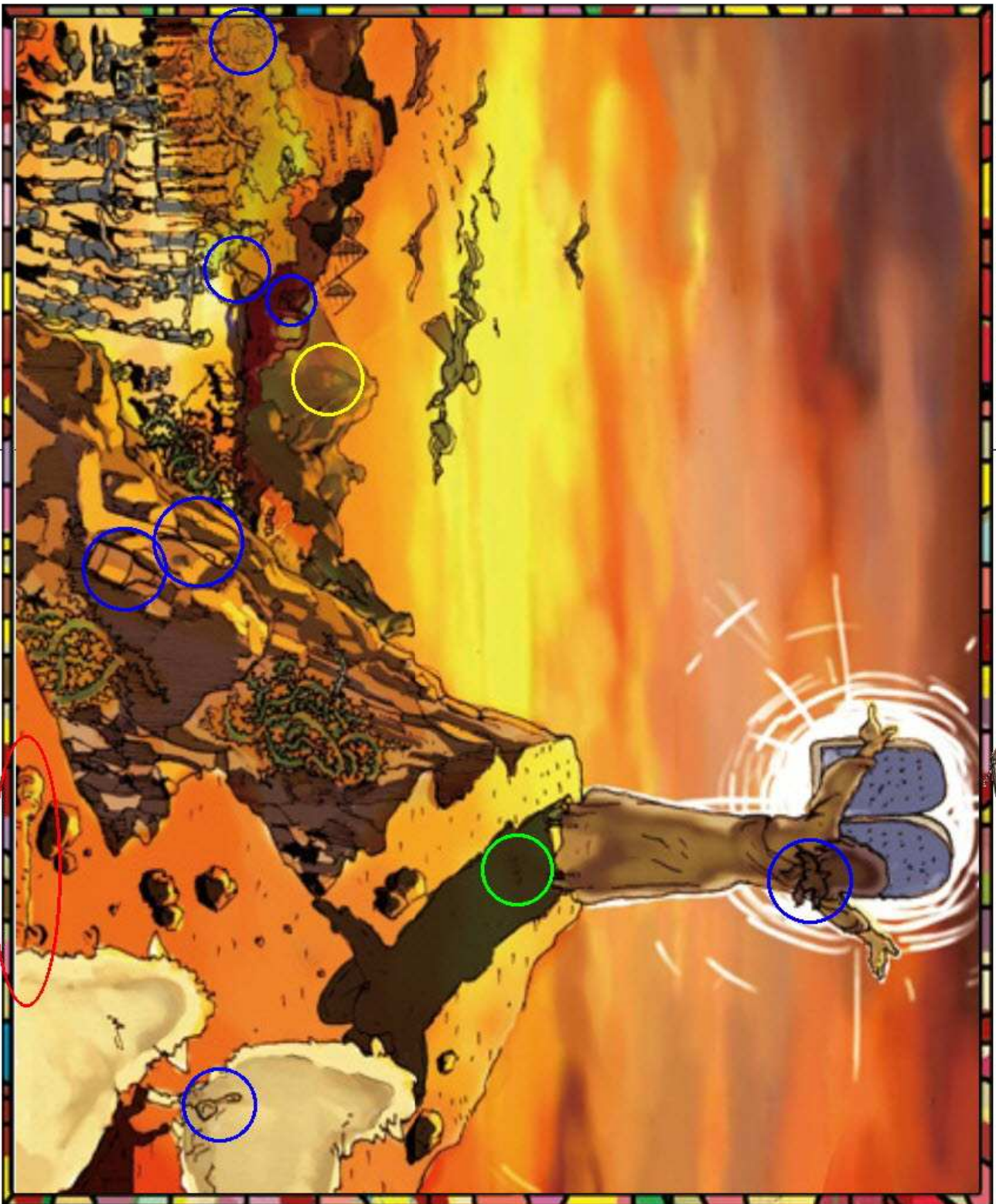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훌륭하게 자랐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이라는 당신의 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고 지키면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명 기둥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판을 받기 위해서 상을 칠 때부터 돌로 타내면 죄 땅이름 한쪽에 놓았습니까, 어디에 놓았을까요?

순은그림: 벱, 새, 손가락, 야구방망이, 벱조, 타구채, 가자리채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레위기 34:11)



학습목표

-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배우고, 십계명을 외울 수 있다.

경험, 메시지

-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내용이다.
- 교재의 그림을 보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사의 설명 중 중요한 단어 설명이나 내용의 요점은 메모란을 활용하도록 한다.
- 교재 본문에 제시된 문제를 풀도록 한다. (빨간색)
- 교사는 숨은 그림을 하나씩 제시하여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파란색)
- 예수님 얼굴을 찾아보게 한다. (노란색)
- 본문에 숨겨진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한다. (녹색)

계명 기궤 (발음) 이츠바

★ ▶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판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칠 때부터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한쪽에 놓았습니다.

어디에 놓았을까요?

- 정답 그림에서의 빨간색 동그라미

▶ '계명'이란?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정하신 것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대표적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자유와 생명, 희망과 행복의 길입니다.

하느님은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 처음 세 계명은 '하느님 사랑'입니다.
십계명 중 1~3계명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인이 지키는 계명입니다.
2. 다른 일곱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 중 4~10계명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윤리규범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계약)입니다.

▶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해방시켰나요?

▶ 십계명을 누가 주셨나요?

▶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전해 듣고 무엇을 맺었나요?

깨달음

- 계명과 십계명에 대한 요약정리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앞부분을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이다.
- 교사의 설명 중 중요한 단어 설명이나 내용의 요점은 메모란을 활용하도록 한다.

★ ▶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해방시켰나요?

- 하느님(모세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행한 사람)

★ ▶ 십계명을 누가 주셨나요?

- 하느님

★ ▶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전해 듣고 무엇을 맺었나요?

- 계약(하느님과의 약속)

♡ ▶ 십계명을 써 봅시다.

제 1 계명

제 2 계명

제 3 계명

제 4 계명

제 5 계명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

제 9 계명

제 10 계명



응답

- 십계명을 불러주고 받아쓸 수 있도록 한다.
- 알고 있는 만큼 적도록 한후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다.
- 적고 난 후 학생들이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십계명을 써 봅시다.

제1계명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제2계명 :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제3계명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제4계명 : 부모에게 효도하라.

제5계명 :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제6계명 : 간음하지 마라.

제7계명 : 도둑질 하지 마라.

제8계명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제9계명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제10계명 :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